

담양군,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교육 운영

전국 청년들 대상, 관광 콘텐츠 제작 지원 담주 다미담예술구에 청년인구 유입 목적

담양군이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광사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사업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담주 다미담예술구에서 지역에 새로운 청년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교육은 담양 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 생태 자원을 여행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과 상품개발 및 시범사업화를 교육하는 심화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의 내

용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기초교육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잠시 중단됐던 심화교육 단계로 5일부터 진행되며, 로컬크리에이터 플랫폼, 관광트렌드 및 동향, 홍보/마케팅, 로컬여행투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최종 관광 콘텐츠는 참여자가 직접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담주 다미담예술구(담주4길

24-36)에서는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여행자 플랫폼'도 조성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향후 담양의 새로운 관광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년예고(061-382-201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종연 기자

장성군, 육군사관학교 유치전 나서 상무대와의 연계 통한 미래 국방력 강화

장성군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상무대와 연계한 효과적인 군사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소유인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육사 부지 이전이 거론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경기, 충남, 강원, 경북 등지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성군도 작년 8월부터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검토했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이전 추진안을 대

통령 선거 대비 정책과제로 전라남도 측에 제출했다. 이어서 17일에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공약에 '육군사관학교 장성군 이전'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유치 추진을 본격화했다.
장성군의 육사 유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상무대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성군에 육군사관학교가 들어선다면 양 군사교육 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와 상호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유광종 기자

나주시 '마한사 복원' 착수

나주시가 5대 선도정책과제 중 하나인 '마한사 복원'의 차기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6월 10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마한사 복원의 역사적 가치와 당위성, 체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선도정책과제 민관공동위원회 제 2차 마한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한사 복원 정책과제는 그동안 신라, 백제, 가야문화권과 비교해 소외됐던 영산강유역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나주를 비롯한 호남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시는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와 마한 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한사 복원을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시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한사위원회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마한사 복원 및 역사문화도시 지정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발굴한 13개 과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현재 '나주마한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마한문화유적 국가사적 지정' 등 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동철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해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 중순 경 만75세 이상 시민 1만2천119명을 대상으로 1일 600명씩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총 178명 2억 원 지원...오는 21일까지 접수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영광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총 17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 나 그 보호자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 및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학교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교사이다.

지원금은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80만원, 교사 100만원이며 대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초·중·고등학교생과 교사의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하며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인재육성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 기자

나주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이상 無

강인규 나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해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 중순 경 만75세 이상 시민 1만2천119명을 대상으로 1일 600명씩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입·출구 및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접

종 단계별 구역 동선과 백신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전기·소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원활한 접종을 위해 5일 예정된 경찰서·소방서·군부대·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모의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진에서부터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관찰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불편 없이 안전하

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가겠다"며 "1일 600여 명의 접종 인원엔 따른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접종 기간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을 위한 읍·면·동 차량지원과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이번 예방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선택 기자

화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본격 추진 '화순지학 향교지락'...배우며 즐기는 전통문화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정돼 '화순지학(和順之學) 향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화순군이 후원하고 화순향교(전교 배남철)와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주관해 진행 중이다.
화순향교를 배경으로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유생체험 프로그램과 화순의 인물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물

학 강의가 열린다.
▲유생의 후예(유생체험) ▲나는 선비로소이다(화순 인물 열전 인물학 강의) ▲슬기로운 향교생활(문화강좌) ▲걸어서 화순 속으로(1박 2일 답사) ▲시월의 만화향연(마을진치)의 5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화순향교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